



기전대, 일반계고 학생 대상 청년고용정책 특강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6일 김제서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 학생 대상 청년고용정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특성화 고교생의 자기 이해에 기반한 효율적인 진로설정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노약자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안내하고자 특강을 준비했다"며 "대학고교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 노력할 것”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창단 20주년 환경정화 '줍깅 DAY' 봉사활동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변함없는 지역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봉사활동을 조직화하여 지역사랑에 앞장서고자 2008년 6월 24일 창단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및 집행위원, 임직원 등 약 80명이 전주·삼천천면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환경정화 줍깅 DAY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그동안 사랑과 희망의 호프데이, JB희망의 공부방, 급여 1% 나눔 지역사랑성금 나눔, 삼계탕 봉사활동, 연탄 및 김장 봉사활동, 재난·재해복구 봉사활동, 신입행원 봉사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현열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유일의 항토은행으로서 변함없



는 서민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여러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며 봉사단 창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봉사단 창단 후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곳곳에 한결같은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던 선배들과 직원들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대, 참전유공자 위한 정성 가득 보양밥상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6일 참전유공자를 위한 정성 가득 보양 밥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전북동부보훈지청(순순옥 지청장)이 지원하고 전주대학교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이다.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학과장 도현옥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북복합캠퍼스를 조리해 이날 참전유공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음식을 조리한 한식조리학과 김동훈(18학번) 학생은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현옥 교수는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보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제3회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콘서트 성료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는 '제3회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콘서트'가 지난 24일 전주중앙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콘서트는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용기와 삶에 풍요로움을 주기 위한 각종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고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참여확대에 기여하고자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전주시, 전주시장에인복지협회,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수정과한울터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소장,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원, 이수정 전북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백현규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 이사 등 내빈들과 장애인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품바 명인 개나리의 무대, 고고장구·민요 공연, 하모니카 연주, 가수 박부철·구재영·이수정·김민주·송희숙·정순임·진문택의 초청공연, 장애인기수 송용섭·명현·김동복·손길천·선승복의 초청공연, 장애인 물품잔납식 등으로 구성됐다. 김양욱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콘서트를 계기로 장애인에게 용기와 삶에 의욕을 심어주고 밝고 명랑한 시민으로 더욱 건강하고 삶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커플링사업단 취업캠프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커플링사업단은 지난 23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업캠프는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해 학생들의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취업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성, 태도,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취업캠프를 진행한 박승미 교수(간호학부)는 "취업에 필요한 마인드, 면접 스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취업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재현 커플링사업단장은 "최근 취업 트렌드는 기 취업한 기관에서 어려운 신입 시기를 버티고 커리어를 갖춘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라면서 "커플링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교육받는 각 과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와 보건행정학과가 참여한 올해 커플링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인성교육, 실무중심 교육, 현장중심교육, 지역중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포항시, 상호 기부 실천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과 포항시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운동에 동참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무주군은 포항시에, 포항시는 무주군에 각 1백만 원씩을 상호 기부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 김만성 회장은 "두 지역 단체의 인연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상호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과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99년 10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우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영호남대회(국민화합대회)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주지홍 회장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쁜 마음"이라며 "무주군이 발전하고 무주군민이 행복해 보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만큼 잘 쓰여질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는 1989년 4월에 설립된 현재 497명의 회원들이 녹색성장운동실천(음·면 순회 청결운동, 산불예배감시, 국도 및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등)과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자연보호를 위한 현장 교육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2022년에는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총 2백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 상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26일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위원 15명이 참석해,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상반기 △외부 공모사업 선정·추진 △우수 자원봉사 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활동 소식지 발행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실시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축에 기여했다. 김진석 운영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센터 운영위원들에게 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금상 수상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23일에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전라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장수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변암초등학교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가 주최하는 제21회 전라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이 단체 율동을 기미한 소방동요 합창을 하며 실력을 뽐낸다. 장수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변암초등학교 박상준 학생을 비롯한 18명의 학생들은 '원시인과 불'이라는 곡을 부르며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자치부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상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금상을 수상한 변암초등학교 학생들을 축하하며 이번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북한 수어 배우기 행사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전북남원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협의회장 고명철)는 지난 6월 23일 축철 3층 회의실에서 '농인과 함께하는 북한사회 이해 및 북한 수어 배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경훈 통일드림대표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 북한이탈주민 이해,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 시대에 농인의 역할 준비, 남북 손발수어 배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신경훈 통일드림대표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 북한이탈주민 이해,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 시대에 농인의 역할 준비, 남북 손발수어 배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신경훈 통일드림대표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 북한이탈주민 이해,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 시대에 농인의 역할 준비, 남북 손발수어 배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고명철 협의회장은 "장애우들이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인재육성 위해 지역 기업들 장학금 기탁

무주군에 이어지는 장학금 기탁 열기가 뜨겁다. 26일에는 산마을영농조합법인이 2백만 원, (유)올레에팜이 1백만 원을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산마을영농조합법인 박민철 대표는 "아이들이야말로 지역을 키우는 힘"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을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크게 닿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산마을영농조합법인은 무색소 무방부제, 무MSG 원칙을 가지고 도라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취약계층을 위해 도라지차를 기증 장학금도 기탁한 바 있다. (유)올레에팜은 지역 농산물을 수매 후 전처리 및 단순 가공·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서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올레에팜 최성민 대표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돕고 헤아리는 마음이 결국 세상공파를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전 김제지점, 김제시에 국가유공자 후원금 기탁

한전MCS(주) 김제지점(지점장 최창운) 사회봉사단은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MCS(주)는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체납관리 및 고객서비스 현장업무 전과정에 걸친 검침 토털 서비스 제공 전문기업으로 김제지점은 전직원이 함께 봉사하고 기부에 뜻을 모아 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목거노인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운 한전MCS(주) 김제지점장은 "이번 인연을 계기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복지사각지에 발골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는 "나눔 복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제시에서도 복지사각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